

“직장에서의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며”

원광대병원 교직원들 필리핀 해외연수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외 연수를 시행했다.

직원 사기 진작과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실시했던 지난 2015년 1, 2차에 걸친 직원 해외연수가 높은 호응을 보임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 까지(3박 5일) 26명의 교직원이 제3차 해외 직원 연수를 필리핀 세부로 다녀왔다.

원광대병원은 글로벌센터 방문, 협약기관 방문 견학, 현지 문화탐방 등의 일정으로 짜인 이번 해외연수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 최대한 배려했다.

오로지 자신만을 배려 해 놓은 시간들을 통하여 직장인으로서의 새로운 마인드 정립과 애사심 함양을 통한 신바람 나는 일터의 분위기를 조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원광대병원은 그동안 일부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외 연수를 실시 한 적이 있었으나 꾸준히 연계되지 못했다. 이런 아쉬움을 최두영 병원장의 용단으로 꾸준히 실시하게 되었다.

최두영 원광대병원장은 “직원이 신바람 나지 않는 조직은 경쟁력이 없다. 외부 고객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은 내부 고객이다”며 “해외 연수 기



원광대병원은 글로벌센터 방문, 협약기관 방문 견학, 현지 문화탐방 등의 일정으로 짜인 이번 해외연수에서 출중한 일정 대신 직장 생활과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로 최대한 배려했다.

간 동안 자신의 삶과 내 직장 동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직장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정립 할 강조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박천식 전 전북대 박물관장 별세

전북대 박물관장을 역임한 박천식 전북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향년 80세)가 17일 별세했다. 박천식 교수는 전주고, 서울대학교 사대, 전남대학교 대학원(문학박사)을 나와 전북대 인문과학대학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대학교 박물관장 등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장남 근영(광운정신건강의학과의원 원장) 차남 원영(이공일건축사사무소 소장)·3남 수영(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씨가 있다.

빈소는 전북대학병원 장례식장1호실에서 발인은 19일 오전 9시, 장지는 전북 진안군 군산리이다. 연락처:010-2299-1392. /박용주 기자



故 박천식 관장

임실 진수사, 부처님 오신날 맞아 ‘산사 음악회’ 열어

지역민과 화합 한마당...지역발전기금 기탁

한국불교대교종 진수사가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지역민과 함께 하는 작은음악회를 열어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에 자리한 진수사(주지 화산당 진수)는 지난 14일 석가탄신일 새터에서 법회를 열고 작은 음악회로 지역민과 화합 한마당을 이뤘다.

특히 이날 산사 음악회에는 진수사 불자와 지역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들녘음악회가 ‘나은 행복한 사람’, ‘아름다운 것들’ 등 귀에 익은 포크송을 불러 지역민들과 즐거운 추억을 함께 나눴다.

산사 음악회에 앞서 수천리에 지역발전기금을 기탁한 주지 화산당 진수 스님은 인사말에서 “진수사 새터에서 모시는 부처님오신날 지역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을 찾아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따뜻한 햇살, 산과 들에 꽃들이 피어날 때, 계절이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차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진수사는 지난 2012년 약사여래 점안식을 갖고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새터 터울림 행사로 새 땅에 법당을 짓고 새터와 어울려 상생의 뜻을 하늘에 고했다.

또, 진수사 새터에 업드림(Up Dream) 명상 치유공간을 조성해 종교를 뛰어 넘는 명상과 치유의 공간으로 꾸려 나갈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지원이와 병관이 시리츠’ 고대영 작가와의 만남

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효순)은 17일 김제초등학교 등 북부권역 10개교 초등학생 및 학부모·교사 대상으로 김제교육문화회관 시청각실에서 고대영 작가와의 만남을 운영하였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학생들은 김제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에 미리 배부한 작가의 책을 읽고 인상깊은 장면 그리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작가에게 궁금한 점 질문하기 등의 독후활동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준비하였다. 이번 작가와의 만남에서는 교과서에 나오는 ‘지원이와 병관이 이야기’의 고대영 작가를 모시고, 학생들의 책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창작에 대한 꿈을 키우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역사회단체(김제천지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작가와의 만남을 지원받아 지역 학생들이 꿈을 찾고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가 더 깊다.

/김제=곽노태 기자



장수경찰서, 수사과 안오열 경사 업무유공 서장 표창수여

장수경찰서(서장 윤중섭)는 17일 오전 서장실에서 수사과장, 동료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과 강력팀 안오열 경사에 대한 경찰서장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은 최근 발생한 농가 빈집침입절도 피의자를 검거한 유공으로 경찰서장 표창을 수여받았다.

안오열 경사는 “절도범을 잡느라 같이 고생한 강력팀장님과 강력팀 직원들을 대표해 표창을 수여받게 되어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장수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장수경찰이 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전주완주시군지부·전북농협 농촌일손돕기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정형모), 전북농협 농촌지원단, 고향주부모임, 농기주부모임 30여명은 17일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정형모 지부장을 비롯한 농협 직원들은 복숭아 적과 작업 및 주변 정리를 하며 구슬땀을 흘리는 한현 현장에 직접 나와 농업인들의 고충사항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일손 지원을 받게 된 유석용(56)씨는 “복숭아 적과 작업은 손이 많이 가는 힘든 작업인데 농협 직원들이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말했다.

정형모 전주완주시군지부장은 “농협은 지난날부터 범농협 전국동시 영농지원 발대식과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는 등 범농협 차원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행복하게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기자

전주시보건소, 부족한 과수농가 일손에 힘 보태

전주시 공무원들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일손 거들기에 나섰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 직원 30여명은 17일 완산구 중인동의 한 과수 농가를 방문해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탰다.

이번 봉사는 봄철 영농기를 맞아 농촌지역 인구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소 직원들은 이날 중인동 복숭아 농가에서 복숭아 수거와 주변 제조작업 등 환경정비를 실시해 농가에 도움을 줬다.

보건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은 과수재배 농가주는 “과수는 적기에 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농촌에서 인력 구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며 “공무원들의 농촌 일손 돕기가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숙 전주시 보건소장은 “비쁜 일상이지만 본격적인 봄철 농번기를 맞아 하여 취약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관심을 갖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기관을 연결해주는 농촌일손돕기 창구를 오는 6월까지 운영한다.

도움이 필요한 농가 등은 각 동 주민센터와 양 구청 경제교통과, 시 친환경농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영재 기자



완산소방서, 화재현장 인명구조 시민 표창 수여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는 17일 화재현장에 119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인명구조에 노력한 노려한 30대 부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시민 영웅으로 소방서 표창을 받은 유모(30)씨 부부는 지난 13일 오전 5시 56분께 전주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현장 “살려주세요”라는 소리를 듣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어 인명구조에 힘을 보탰다.

이들 부부는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온 1층 창문의 방범창을 뜯어 인명 대피를 유도하는 등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제태환 완산소방서장은 “유씨 부부와 같은 시민영웅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가 더욱 아름답다”며 “화재나 구급과 같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신고와 신속한 대처 등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안진수 기자

고속도로순찰대, 대형버스 음주가무 운행 집중 단속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버스에서 음주가무를 방조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 40점이 부과됐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유택기)는 고속도로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대형버스 음주가무 운행 운전자 8건을 적발, 운전자에게 10만원의 범칙금을 통고처분하고 벌점 40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운행하는 대형버스에서 10여명 이상의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복도나 자리에서 일어나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음주가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로 번질 위험이 크다.

이에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3월부터 고속도로휴게소와 톨게이트 등에서 대형버스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가무 근절 캠페인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펼쳐왔다. 지난 주말 야간 단속에서는 고창IC 부근에서 음주가무 대형버스를 운행한 운전자를 적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만원의 범칙금과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택기 서해안 고순대장은 “고속도로에서 음주가무 행위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불법 행위로, 대형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운전자들의 음주가무 운행금지 등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

부음

류창욱 (전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모친상

-빈소 : 전주 모악장례문화원
-발인 : 2016. 5. 18(수) 09:00
-연락처 : 류창욱 (010-3659-7207)

결혼

▲신광영(전주매일신문 정경부장, 최경숙씨 막내)군·유지선(유영안·김복남씨 막내)양= 일 시 : 21 일(토) 오후 2시 30분 장 소 : 전주 오벨리스(구. 웨딩캐슬) 2층 러브홀리홀

전주매일		www.jmaeil.com		2016년 11월 29일 등록(일간)			
동북번호 전북 4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근		전주 김관춘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지	중앙지사	010-9386-6674	남원지사	632-3396	고창지사	563-6999	
010-9845-4113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55	진안지사	433-3064	
010-2333-4791	필박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385	정읍지사	536-3767	
서신지사	272-9417	군산지사	445-0157	순창지사	66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효지지사	010-8945-9935	익산지사	669-9923	부안지사	584-042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헌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완산경찰서, 업무유공자 표창·민간인 감사장 수여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장하연)는 17일 중요범인 검거 등 업무유공자 표창과 민간인 감사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표창장을 받은 업무유공자는 강력 2팀 이태운 경위, 조종현 경위, 장원만 경위, 화교폭력전담팀 강주형 경장 등 5명이며, 민간인 감사장은 전주 성심여고 2학년 안소희, 이지의 학생에게 수여됐다.

이태운 경위와 조종현 경위는 서신동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을 훔친 절도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장원만 경위는 지난 9일 완산구 장승배기로 한 병원 앞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피의자를 검거하는 공을 세웠다.

민간인 감사장을 수여한 성심여고 학생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역치안 확보를 위한 전주교육대학 주변 원룸촌 등 범죄 취약지역을 월 2회 이상 시민경찰 9기와 함께 야간 합동순찰에 참여해왔다.

장하연 완산경찰서장은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모두 직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치안을 전개하도록 더욱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진수 기자